

상담참여자(상담자와 내담자)의 내현적 과정에 관한 개관 연구 : 상담과정 모델의 발달을 위한 모색

김 명 자 · 이 장 호
(서울대 심리학과)

상담 과정에서 상담 참여자들의 내현적 생각이나 느낌들이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나, 대개의 상담과정과 성과연구들은 상담의 내현적 과정에 무관심해 왔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 과정을 강조한 Martin의 인지 매개 패러다임과 Hill의 상담과정모델은, 상담 과정의 외현적 변인에만 관심을 가진 과정-성과 패러다임에 도전하였다. 두 모델은 구체적 개념과 연구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하게 <상담자의 인지→상담자의 행동→내담자의 인지→내담자의 행동>을 포함하는 상담 과정적 모델을 제안하여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해 왔다. 본 개관은 각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두 모델들의 개념과 방법론의 차이를 대별하여 논의한 후, 두 모델이 통합될 수 있는 가설적 상담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안한 가설적 상담 과정 통합모델은, 내담자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의 정보를 갖고 상담자는 적절한 상담 의도를 갖게 되고 이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내담자는 적절하게 의도되어 표현된 상담자의 행동에 대해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 의도와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의 즉각적 성과가 누적됨에 따라 회기 성과와 상담 전체 성과가 결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들과 접근방법들이 논의되었다.

상담에 있어서 상담 참여자들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들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Rice와 Greenberg(1984)는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개념 체계에 따라 어떤 과제, 상황, 행위들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조성하는 목표지향적 존재(Goal setting being)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담자나 내담자의 즉각적인 인지활동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담 동안에 비교적 지속되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들(예, 상담자나 내담자의 성격특성, 접

근방법, 인구학적 정보 등)과 관련하여 상담효과를 검토하였다. 이제는 상담자의 외현 행동, 일반적 특성 및 태도, 내담자의 행동, 일반적 특성 및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변화된 내담자 특성이나 평정된 상담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입력-출력 패러다임(input-output paradigm)은 도전받아야 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80년대에 이르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rtin은 1984년 이전의 과정-성과 패러다임(process-outcome paradigm)에 대한 대안으로 인지매개 패러다임(cognitive meditational pa-

radigm : CMP)을 소개하였으며, 이 모델에 준하여 꾸준히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그 연구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보이는 행동 외에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인지작업을 드러내어 행동만으로 설명하려던 상담효과를 인지까지 포함하여 설명함으로써 상담효과의 예언력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증가된 상담효과의 예언력은 Martin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생태학적으로 가치있는(ecologically-valid) 상담 연구에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egers가 상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학자라면 Hill은 과학성의 한 특성인 체계성을 실현하려고 한 연구자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Rogers는 자신의 상담을 녹음, 녹화하여 축어록이나 녹화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밖으로 드러내어 평가하고 평가받으려 시도하였다면, Hill은 완성된 상담 축어록을 상담자반응유목체계 등과 같은 임의적이지만 일정한 잣대로 각 상담 축어록을 분석, 평가하여 과학의 체계성, 객관성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Hill(1978)은 처음에는 축어록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지만 상담자의 의도연구 (Hill과 O'Grady, 1985)를 통해 동일한 상담자 개념이 왜 다른 성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또한 그녀는 상담자의 의도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보이지 않는 느낌이나 생각의 탐색을 통해 목표지향적(goal setting being)인 내담자의 특성이 상담성공에 미치는 영향(Hill, Helms, Spiegel 및 Tichenor, 1988)을 탐색하였다. Hill 자신은 '인지'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제안한 상담과정 모델은 Martin의 인지매개 패러다임과 유사하다. 즉 Martin의 상담자 인지-상담자 행동-내담자 인지-내담자 행동의 고리와 Hill의 상담자 의도-상담자 반응양식-내담자의 심리적 반응-내담자 반응양식의 고리가 거의 일치하며 그 시기도 각각 1984, 1985년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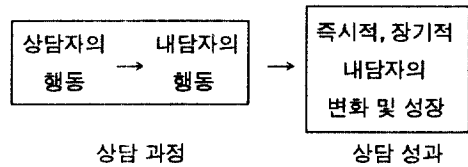
본 개관은 상담의 보이지 않는 일면들인 상담자의 인지활동이나 의도, 내담자의 인지활동이나 심리적 반응을 다룬 두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JCP에 발표된

Martin과 그의 동료들의 1984, 1986, 1987, 1988, 1989년 연구들과 JCP와 JCCP 및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Hill과 그의 동료들 및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1985년부터 최근에 발표된 순서로 소개하고, 두 모델의 이론적, 방법론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상담 과정에 대한 미래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Martin류의 연구들

Martin(1984)은 인지매개패러다임을 처음 소개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과정에 대한 비교적 직접적인 자료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담과 관련하여 인지라는 개념이 이미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효과 연구에서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는 상담 효과를 다룬 대개의 연구가 과정-성과 패러다임내에서 이루어졌으나 대안으로 인지매개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몇 가지 방법론적, 개념적 문제를 덧붙였다.

기존의 과정-성과 패러다임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상담의 원인적 영향이 상담자에게서 내담자에게로 흐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자의 행동은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1로 표현할 수 있다.



상담 과정
상담 성과
그림 1. 과정 - 성과 패러다임

그러나 인지매개 패러다임은 그림1에서 표현된 모델에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지과정을 분명하게 덧붙인 것이다. 그림2를 검토해 보면 일단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가 상담 효과를 설명하는데 첨가되었고 과정-성과 패러다임의 2개의 기본 가

정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상담자의 치료 개입에 대한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상담자 행동이 내담자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상담자의 행동은 내담자의 인지 지각에 의해 매개된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지만 다른 내담자는 배우지 못한다. 이는 상담자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상담자의 행동에 대해 내담자들이 서로 다른 인지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상담의 원인적 영향이 상담자에서 내담자로 흐른다는 가정도 역시 인지매개 패러다임에 의해 도전받는다. 상담자의 행동이 내담자의 인지적 매개를 통해 내담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내담자의 행동도 상담자의 인지를 매개로 하여 상담 중에 상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이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상담자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상담 개입이라도 일관되게 행하기 어렵고,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진 상담자라고 실제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된다(Goldfried,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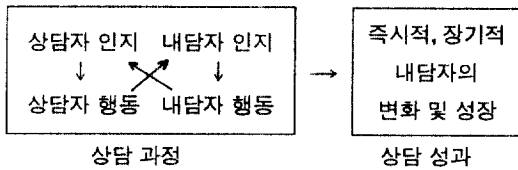


그림 2. 인지매개 패러다임

그림2의 인지매개 패러다임은 적어도 세가지 조건과 몇가지 부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이상적 상태가 된다. 첫째, 상담의 특정 시기에 상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그의 인지적 의도나 목적과 일치하여 표상되어야 한다. 둘째, 상담자가 의도했던 대로 내담자의 행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상담 중의 내담자는 인지적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이렇게 복잡한 매개 과정은 적어도 네가지 하위 조건을 요구한다. : (1) 상담자의 행동적 단서가 의도했던 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2) 내담자는 이들 단서 뒤에 있는 상담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각

해야 한다. (3) 상담자의 단서와 이에 연합된 의도를 정확하게 지각했으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추구하는 인지적 생산물을 얻기 위해 인지적 작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앞의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의도한 대로 상담을 매개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야 한다. 내담자가 상담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세번째 조건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인지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음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야 상담자와의 상담 과정에 관한 잠정적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잠정적 계획에 기초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다음 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상호작용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상담자의 의도, 상담자의 행동, 내담자의 인지 과정 및 내담자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생겨나고 반복되어, 결국은 상담자의 목표와 목적과 연결된 의미로운 학습으로 이끌린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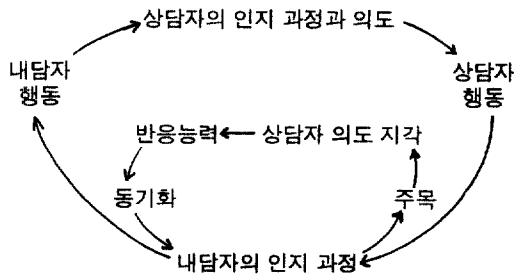


그림 3. 상담자-내담자 행동과 인지의 상호작용

그래서 인지매개 패러다임은, 상담이 주조건과 부조건이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됨을 예언한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상담 효과는 상담자의 의도와 행동, 상담자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과 인지 과정, 내담자의 인지 과정과 연속된 행동간의 결정적 고리들에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이들 인지-행동 연결 중 어느 곳에서도 불일치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상담 효과의 이상적 고리는 깨어지게 된다. 상담의 효과란 상담자의 개인내, 개인간 인지-행동 전환 능력과 기술에 의

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가지를 소개하였는데, 자신의 인지 과정을 평정하도록 훈련시키는(process training) '생각의 즉각적 표현'(think aloud), '자극된 회상'(stimulated recall) 및 '인지훈련'(cognitive training)이 그것들이다. 이 중 Martin은 상담 중의 인지작용에 관한 연구에는 '자극된 회상'기법을 사용하도록 추천하였다. 이 방법은 Kagan(1973, 1963)이 상담자 훈련을 위해 사용했던 대인 과정의 회상(Interpersonal Process Recall: IPR)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담을 녹화하거나 녹음을 한 다음, 바로 그 녹화된 장면이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때의 인지 과정을 회상해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직접적인 인지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에 비해 보다 명세된 질문을 하여 덜 왜곡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상담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지를 측정해 내는 보다 상담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그는 미래의 연구방향으로, CMP에 근거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 및 행동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상담 성과와 연결짓는 연구, 상담 성과와 관련된 인지과정과 행동이 특정 이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 및 CMP순환고리를 명세화하는 연구들을 추천하였다. 실제로 그와 동료들은 이후 추천했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Martin, Martin, Meger 및 Slemon(1986)은 자연스런 상담 맥락에서의 CMP고리(상담자의 인지-상담자의 행동-내담자의 지각-내담자의 인지과정-내담자의 행동)를 검토하여 이들 변인들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평정한 상담 성과와의 관계를 상담자의 경험정도(초심자 대 경험자)와 상담단계(초기, 중기 및 종결기)에 연결지어 기술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인지과정 유목체계에는 기대하기(expecting), 주목하기(attending), 약호화하기(encoding), 시연하기(rehearsing), 연합하기(associating), 상위인지하기(metacognizing), 기억하기(retrieving), 구성하기(assembling)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담자의 행동과

내담자의 행동은 Martin이 개발한 상담기술분류(counseling skills taxonomy)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이 분류에는 26개의 유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상담자 7명이 내담자 10명을 각 8-10회기 동안 상담한 것을 모두 녹화한 후 그 중 29회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회기에서 녹음 테이프 100피트 간격으로 여덟번의 상담자-내담자의 반응자료만 발췌하여, 상담 직후에 상담 당시의 생각이나 의도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자극된 회상 면담(stimulated recall interview)을 하고 그 면담한 내용을 가지고 인지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상담자나 내담자가 인지 과정을 직접적으로 평정할 경우, 동일 방음이라도 상담자들이나 내담자들간에 서로 다르게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시간 후에 이루어진 면담 내용을 보고 일괄적으로 제 3의 평정자가 인지과정을 평정하게 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담자-내담자 인지 변인의 매칭이 상담자-내담자 행동의 매칭보다 낮았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에게서 의도했던 것과 내담자가 인지적으로 진행시킨 것과는 그 일치도가 낮았다. 둘째, 상담자의 의도와 상담자의 의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의 일치도는 상담자의 상담 평가와 부적 상관($r = -.44$)이 있었다. 즉, 내담자가 상담자의 인지 과정을 쉽게 파악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담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의도와 내담자의 인지과정들을 살펴보면,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와 관련된 생각과 개념들을 인지적으로 연결(association)하게끔 도와주며, 생각과 느낌을 검색하게끔(metacognizing) 의도한다. 이들 보다는 적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며(encoding), 기억속에 있는 관련정보를 회상하게끔(retrieving) 의도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회상된 인지과정들이 상담자가 의도했던 내담자의 인지과정과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구성하기(assembling)는 상담자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고 약호화하기(encoding)는 의도보다 적었다. 다섯째, 동일한 내담자의 인지과정에 동일한 상담자의 기술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상담자의 의

도→상담자의 반응방식→내담자의 인지과정간의 비교적 안정된 패턴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경향성만 나타났지만 상담의 단계 중 중기에 각 과정 변인들이 더 일치하였고, 경험 많은 상담자가 행한 상담에서 각 과정 변인들이 더 일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Martin 자신이 제안한 연구 패러다임을 경험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처음 시도했다는 점을 연구 의의로 들 수 있으나 사용한 인지 평가 체계와 행동 평가 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들은 한 회기중 여덟번의 상담자-내담자의 반응만을 사용하여 인지-행동관계를 살피려고 하였으나 인지매개 패러다임은 상담자-내담자의 계속되는 고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는 자료들은 그 의미를 잃는다. 자료수집에 어려움은 있지만 상담자-내담자 고리에서 회기전체의 상담자, 내담자, 다시 상담자로 이어지는 자료(혹은 내담자-상담자-내담자)를 수집하여 인지매개 패러다임의 고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Martin, Martin 및 Slemmon(1987)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적 행위(activity)가 특정 치료접근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Rogers인 인간중심치료(PCT)와 Ellis의 지정요법(RET)에서 상담자의 의도, 상담자의 행동, 내담자의 지각, 내담자의 인지과정, 내담자의 행동 및 상담효율성에 대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평정을 확인하기 위해 Martin 등(1986)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자극 회상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치료적 접근에 동등하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호화 체계와 절차를 사용하기 보다는 PCT와 RET에 각기 적용될 수 있는 부호와 체계를 사용하여 일반적 코딩 체계를 사용한 기존의 인지매개 과정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내담자의 인지적 지각 및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이 행동 변인들 단독에 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효율성 평정을 더 강하게 예언할 것을 가정하였다. 또 PCT에서는 상담자의 투명성(transparency, 상담자의 의도에 대한 내담자의 정확한 지각)과 효율성 평정간에 상관에 나타나지 않고, RET에서

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러한 예언은 RET에서는 내담자의 인지적 특징이 더욱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내담자에게 더욱 직접적 지시를 한다는데 근거한다. 3명의 경험 많은 상담자와 유사한 문제를 가진 4명의 내담자가 행한 상담 중 각 접근방법에 따른 10회기 상담이 모여져 모두 20개의 회기가 분석되었다. 절차는 Martin 등(1986)과 동일하나 각 의도와 행동을 평가하는 유목체계는 달랐다. 결과는 각 접근 방법별로 제시되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상담자의 투명성과 상담효율성에 부정 상관($r = -.30 \sim -.64$)이 나타났다. 지정요법에서도 상담자의 투명성과 상담효율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정간에 부정 상관($r = -.20 \sim -.66$)이 나타나 예언 중 일부만 지지되었다. 이 연구 역시 유목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Martin 등(1986, 1987)의 연구와 더불어 어떤 유목 체계를 사용하더라도 인지를 포함한 과정 측정이 상담효과를 더 강하게 예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상담자의 투명성과 상담효율성간의 부정 상관은 애초의 Martin 주장과는 상치된다는 점이다. Martin 자신은 상담 내용이 익숙한 것이면 상대방의 인지의도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상담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친숙도 가설(familiarity hypothesis)'을 제안하여 검증하려고 했지만 지지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아마도 상담과정 중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내담자 자신의 생산적인 작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작동기억(working memory)용량에도 한계가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Hill과 O'Grady, 1985). 즉, 내담자가 상담자의 인지과정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내현적 작업을 진행시키는 데에는 제한을 받을 것 같다.

Martin과 Stelmazonek(1988)은 이전의 CMP를 확인하려는 연구와는 달리 상담자와 내담자의 회기내 회상된 주요 사건(event)의 특성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은, 내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사용이 유용할 때 활용되도록 촉진하게 된다는 응용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번째 연구는 1)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에 의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사건들은 어떤 종류인가? 2) 이 사건들이 상담 단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가?를, 두번째 연구는 3) 사건의 어떤 특성들이 내담자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4) 상담 종료 6개월 후에도 내담자들은 이전에 중요하다고 간주했던 사건들을 회상하는가?를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1은 상담자 3명과 내담자 8명으로 행해진 8쌍의 상담에서 상담 단계의 초기, 중기, 말기의 상담 회기가 끝나자마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상담기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을 확인하는 면접이 이루어졌고 이 면접을 녹음하여 이를 축어록으로 만들었다. 이 축어록은 Mahrer와 Nadler(1986)에 의해 개발되고 Martin 등(1987)에 의해 정교화된 12범주의 상담 사건 목록을 사용하여 부호화되었다. 결과로, 상담자에게 있어 회상된 주요사건은 통찰, 이해의 표현→개인적 사건의 기술→느낌의 서술과 탐색→새로운 존재 방식이나 행동의 표현순이었고 내담자에게 있어 회상된 주요 사건은 통찰, 이해의 표현→개인적 사건의 기술→새로운 존재양식이나 행동의 표현→느낌의 서술과 탐색 순이었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는 각 회기에서 선택한 주요 사건의 1/3 정도만 일치율을 보였다. 또 상담 단계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담자와 내담자 공히 중기에 다양한 반응경향이 나타났다. 즉, 강한 느낌의 표현, 주요 사건의 출현, 치료절차의 학습이 중기에 종종 나타났다. 연구 2는 상담자-내담자 3쌍에게서 5개의 회기를 선택하여 상담이 끝난 후 상담의 주요 사건을 회상, 부호화하고, 여섯달 후 추수면접을 하여 전에 주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던 사건들을 회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연구 2는 연구 1과 달리 회상된 주요 사건을 내용적으로 부호화하지 않고 사건의 정보처리 차원 특성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즉, 내담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건들은 McCarthy, Shaw 및 Scheneck(1986)이 개발한 다섯가지의 정보처리차원 - 1) 깊이 2) 정교성 3) 대인 여부 4) 명료성 5) 결론-서술 지향의 6점 척

도로 평정되었다. 추수면접에서 회상된 사건은 1) 회기-중요 2) 비회기-중요 3) 회기-비중요 4) 비회기-비중요 5) 허구적 조작의 다섯가지 범주로 부호화하였다. 이 때 '회기'란 녹화되어서 자료 수집되었던 5개 회기를, '중요'는 전에 중요 사건으로 지적했던 사건을 다시 회상한 것을, '비 중요'는 전에 중요 사건으로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중요한 것으로 회상한 것을, '허구적 조작'은 이전의 상담에서 결코 나오지 않았던 사건을 만들어 회상한 것을 각각 말한다. 결과는, 내담자가 중요하다고 간주한 사건들은 깊고, 정교하며, 결론지향의 정보처리를 나타내는 대화였고, 6개월 후 이루어진 추수면접에서 회상된 정도는 1)이 40%, 2)가 32% 3), 4)가 14%, 5)는 없었다. 두개의 연구를 통해 상담자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사건의 종류들이 거의 일치율을 보인다는 점과 내담자들이 이 사건들을 상담 종료 6개월 후에도 정확히 회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가 작은 표집, 단기 상담 및 동일한 연구 보조자 등 제한점을 많이 지니고 있지만,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관련 경험들을 더욱 깊고 정교하게 생각하도록 도우면 상담과 실제생활의 간격으로 생기는 학습의 전이 문제나 장거리 학습 효과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한다.

Martin, Martin 및 Slemon(1989)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18개의 상담 쌍의 3회에서 8회기까지의 92개 상담 회기를 모아 Martin의 인지매개 패러다임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는 상담 상호작용에서 행위(action)와 영향(act)의 분명한 패턴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행위'란 상담자의 의도와 상담자의 행동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향'이란 상담자의 행동과 상담자의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인지적 조작과 드러난 반응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 연구의 대개의 방법은 Martin의 이전 연구방법과 동일하나 상담자의 의도를 Hill의 의도체계(Hill과 O'Grady, 1985)로, 상담자의 행동은 Hill의 상담자언어반응유목체계(Hill, 1978)로, 내담자의 인지는 Martin 등(1986)이 사용한 11개 범주체계로, 내담자의 행동은 Hill은 내담자 언어반응

유목체계(Hill, 1981)로 각각 평정하였다. 이들은 어떤 추론체계검사도 하지 않고 자료를 기술적으로 제시하였는바, 상담상호작용에는 의미있는 행위-영향 계열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의 Martin 등이 사용했던 유목체계가 아닌, 보다 상담에 접근했다고 여겨지는 Hill의 유목체계를 사용하여 CMP를 확인하려고 한점을 의의로 들 수 있다.

Hill류의 연구들

상담자의 의도(intention)가 상담이나 심리치료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지에 관심을 가진 Hill의 과정 모델은 치료자는 전반적 입력 변인(예를 들면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 물리적 환경, 내담자에 대한 호감도 등) 뿐 아니라 즉시적 자극 변인(예를 들면 행동과찰, 임상적 가설, 상담자 자신의 감정, 전반적 치료 계획, 그 시점에 사용되는 특별한 기법 등)의 엄청난 양의 자료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세련되게 처리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치료자는 자신의 경험과 상담 훈련에 근거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다음 순간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도와 목표로 발달시킨다. 그러면 이들 의도가 상담자 반응을 선택하게 한다. 의도는 언어나 비언어 등 개입의 특성에 따라 실현된다. 예를 들어 느낌을 강조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그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들(앞으로 기울이기, 만지기, 감정의 반영, 침묵, 직면, 자기 공개, 빈의자기법 등)에서 선택되어 표현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특정 기법에 대한 치료자의 선택은 그 기법에 대한 친숙도, 내담자의 행동과 역동, 원하는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에서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도 반응한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의도하는 것을 그려내려고 하면서 내담자에게 들어오는 즉시적 자극 변인들을 상담자와 비슷한 과정으로 통합한다. 내담자는 우선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는 상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특성(개인적 반응을 할 준비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짓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내담자의 반응에 기초하여 상담자도 심리적 반응을 하고 이에 맞추어 계속되는 개입을 한다. 이렇게 과정이 되풀이 됨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자극 변인이 되어, 상담자는 내담자의 역동과 반응 패턴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개념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내담자도 상담자의 개입과 심리적 반응에 대한 안정된 기대를 발달시킨다. 때로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새로운 정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하기 어려운, 안정되다 못해 고정된 개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냥 언뜻 보기에 는 순서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은 상담자가 인간이란 이유때문에 훨씬 복잡하다. Hill의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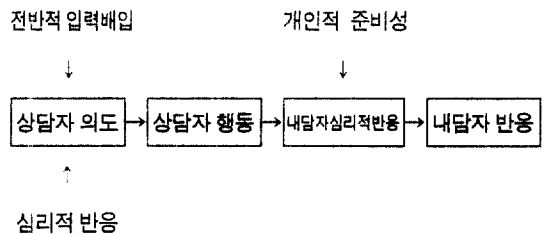


그림 4. Hill의 과정 모델

Hill과 O'Grady(1985)는 의도목록의 발달을 보고한 연구로, 2개의 연구를 통해 의도목록을 검토하였다. Hill 등이 정의한 의도란 상담장면에서 어떤 순간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특정 행동반응, 상담기법, 혹은 개입의 근거(rational)이다. 즉, 의도란 상담자 개입반응을 선택 매개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반응유형이 'Why'에 해당한다면 반응의도는 'What'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들은 19개의 의도목록을 제시하였고 이 연구에서부터 이 후에 발표하는 몇개의 연구를 통해 상담과정에 포함된 여러 변인 중 단순히 관찰가능한 행동을 넘어서 상담자의 인지적 요인인 의도를 변인으로 하는 상담자의 내면적 과정을 밝히려 하였다. 연구 1은 20회기의 시간-제한상담을 통해 세가지 문제가 검토되었다: ① 20회기에 걸쳐 상담자의 의도가 변화하는가? ② 상담자의 의

도는 상담자의 반응유형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③ 상담자의 의도는 내담자의 반응유형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연구 2는 의도 목록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분석, 인본주의, 행동주의 각각의 숙련상담자에 의한 42개의 회기들이 검토되었다. 즉 각 접근방법에 따라 의도의 양적 패턴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하였다. 42개의 상담 회기들에서 나오는 모든 상담자의 반응들이 갖는 의도들을 평정하여 중다변량분석한 결과, 19개 의도목록 중 7개에서 접근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신분석 입장의 상담자는 감정의도와 통찰의도를, 행동주의 입장의 상담자는 변화의도, 변화의 강화의도 및 구조화 의도를, 인본주의 입장의 상담자는 상담자 욕구의도를 각각 많이 사용하였다. 또 이들은 의도평정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의도들을 모두 확인하여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로 의도들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개 의도목록은 2개의 차원에서 다섯가지의 군으로 나누어졌다.

Fuller와 Hill(1985)은 상담자의 각 반응의도와 이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과 조력도를 평정하고 상담자의 의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일치도와 상담 효율성 평가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4명의 경험 많은 상담자가 각각 4명씩의 내담자를 50분짜리 1회 상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시간 효율성 질문지(SEQ)를 완성하였고 녹화를 보면서 각각 상담자의 반응마다 상담자의 의도와 조력도를 평정하였다. 결과 내담자는 상담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지지의도, 촛점주기의도 및 명료화의도를 더 많이 지각하였고 자기통제의도와 저항의도는 덜 지각하였다. 정보수집의도와 구조화의도 및 명료화의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조력도에 대한 내담자 평정은 상담자의 욕구의도, 저항의도, 인지의도 및 관계의도에서 높았고, 구조화의도 정보수집의도, 지지의도 및 촛점주기의도에서 낮았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시하는 의도와 촛점주기의도는 상담자들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났다. 또한 의도지각 일치율과 상담의 효율성 평가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의도 지각 일치율과 상담효율성 평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결론을 유보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1회기 상담자료가 분석되었기 때문에 상담으로의 일반화에 문제가 생긴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아직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므로 다른 요인(예, 내담자의 기대 만족도, 상담자의 외모 등)이 상담효율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도목록에 따라 지각일치율이 다르며 상담효율성과의 관계도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변화에의 강화의도는 상담자가 평정한 상담효율성에서 길이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내담자의 평정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상쇄로 인한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연구에서 합쳐진 지각 일치율의 사용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효율성은 의도단독으로만 설명되기 보다는 다른 과정변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왜내하면 동일한 의도라도 반응유형에 따라 그 조력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경희(1986)의 연구에서도 지적했지만 반응 전달양식에 따라 동일한 의도라도 내담자에 의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오경희(1986)의 연구는 위의 Fuller와 Hill(1985)의 연구가 지니는 몇가지의 제한점이 통제되어 수행되었다. 즉, 상담자가 반응의도를 전달하는데 있어, 그 의도의 종류 및 전달양식에 따라 의도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 그것이 상담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제 상담 일곱사례의 초기 회기를 분석한 예비연구를 통해 초기상담에서 많이 나타나는 여섯가지 의도를 추출하였다. 6개의 의도를 각각 평가의도(정보수집의도, 촛점주기의도, 명료화의도)와 평가의도(지지의도, 느낌의도, 통찰의도)로 나누고 각 의도에 전달양식(질문양식, 서술양식)을 달리하여 두 변인이 상담효율성과 상담자 지각을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보고되었다: 1) 평가의도는 평가의도 보다 더 잘 지각되며 질문양식으로

전달될 때 지각 일치율이 높아지나 평가의 의도를 사용할 때 상담자는 더욱 전문적이라고 평가된다. 2) 의도와 전달양식에 따라 상담효율성과 상담자의 호감도 지각이 달라진다. 즉, 평가의도가 질문으로 전달될 때 피상적인 상담으로, 평가의도가 서술로 전달될 때 순조롭지 못한 상담으로 평가되어 상담자의 호감이 저하되었다. 3) 의도-지각 일치율이 높을 때 상담시간은 피상적으로, 상담자는 덜 전문적으로 지각된다. 오경희(2986)의 연구는 상담자의 의도와 상담자의 반응 양식과 같은 서로 다른 과정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한 연구로서 상담 실제에 보다 접근한다는 의의를 가지나 유사연구(analogue study)라는 점과 의도와 전달양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일반화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처럼 지각 일치율이 상담효율성과 상담자의 지각에 부적으로 관계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최윤미(1988)는 상담자의 반응의 내현적 과정인 반응의도를 중심으로 상담과정을 분석하여,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가 제기한 문제는 첫째,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는 상담자가 보고한 바와 내담자가 지각한 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양자의 상담과 반응의도 지각은 어느정도 일치하는가? 양자의 각 반응의도 지각 빈도가 유의있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의도들인가? 상담자 반응의도 지각양상은 초기, 중기, 종결기로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변화를 보이는가? 둘째, 상담과정에서 자각된 상담자 반응의도의 지각양상과 그 상담회기의 효율성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는 상담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이다. 이 연구는 Hill과 O'Grady(1985), Fuller와 Hill(1985) 연구의 확장으로서 그들의 연구에 비해 상담의 전 단계에 따른 의도의 변화양상을 주요연구주제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자신도 지적했지만 상담의 전회기를 녹음했기 때문에 실제 상담시 내담자의 상담의 관여 정도에 방해되었다. 이점은 이중 맹목(double blind)의 연구수행 원리에 저촉이 되므로 대안이 요구된다. 또 이 연구는 지각일치율

과 상담효율성간의 관계를 다루지 않았다. 상담자, 내담자 각각의 상담자의 의도와 관련된 단면적 특성들이 방대하게 제시되어 미래 연구를 위해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원자료를 마련하였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의도에 따라, 또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개입에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목표지향적 존재(goal-setting being)이다. Hill, Helms, Spiegel 및 Tichenor(1988)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언어반응을 듣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목체계를 발전시켰다. Hill과 O'Grady(1985)가 가정했던, 상담자의 의도가 상담자의 언어반응을 이끌고, 상담자의 언어반응은 내담자의 주관적 반응을 이끌고, 이 주관적 반응이 내담자의 행동을 이끈다는 과정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 긍정적 심리적 반응이 14개, 부정적 심리적 반응 7개로 모두 21개 항목을 가진 내담자의 주관적 반응체계(reaction system)가 개발되었다. 이들은, 개발한 주관적 반응체계를 가지고 내담자의 주관적 반응을 평정하여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함께 상담단계에 따른 차이, 내담자의 사전 증상에 따른 차이, 회기효율성과의 관계 및 치료성과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각 상담자의 반응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동시에 조력도를 평정하게 하여 각 심리적 반응과 조력도와와의 관계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까지는 상담자의 의도나 반응에 주로 관심하였으나 그 관심이 내담자의 인지활동으로 옮겨졌음을 예시한다. 상담자의 의도에 대한 내담자의 정확한 지각과 상담효율성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보다는 오히려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상담자의 정확한 지각이 상담효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전문적 상담에 접근한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동일한 의도, 동일한 반응유형이 내담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 여과되어 서로 다른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지에도 관심할 수 있겠다.

Hill, Helms, Tichenor, Spiegel, O'Grady 및 Perry(1988)는 상담자의 언어반응 양식이 치료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른 과정변인인 상담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담

자의 의도-반응양식상의 즉시적 성과, 회기성과 및 상담성과를 검토하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즉시적 성과에 상담자의 각 반응에 대한 상담자, 내담자의 조력도 평정, 내담자의 심리적 반응 및 내담자 언어반응의 경험수준 평정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타난 결과 중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1) 즉시적 성과측정이 회기 측정과 전체 성과측정보다 상담자의 개입효과 측정에 예민하다. 2) 반응양식 단독보다는 반응의도와 같은 과정변인이 함께 고려된 반응양식이 즉시적 성과에 더 관계한다. 3) 상담자의 개입의 효과는 이전 내담자의 경험수준에 의존한다. 경험수준이 낮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는 감정과 행동을 탐색하는 목적의 개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정하였다. 그러나 내담자는 상담자가 변화를 의도하거나 교육시킬 목적으로 자기-공개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 반면 상담자는 개방질문으로 감정과 직접적 안내를 하는 정보를 높게 평정하였다. 또한 내담자들은 내담자의 이전 경험수준이 높을 때 대부분의 상담자 개입을 조력도가 큰 것으로 평정하였다. 다시 말해 심리치료과정에서 맥락과 시의성(timing)이 중요한 변인임을 증거한다고 하겠다. 이전의 대개 연구들이 내담자 반응에 관심할 때 주로 Hill의 내담자 반응 유목체계를 사용하여 반응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하였다면, 이들의 연구는 내담자 각 반응이 내적인 경험을 얼마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표현하는지에 관심하는 반응의 경험수준을 탐색하였다. 언어반응유목체제로 평정된 내담자의 반응은 상담 성과나 과정연구에 의미있는 정보를 주지 않으나 경험 수준으로 평정된 내담자의 반응은 비로소 인의적이지 않은 내담자의 즉시적 성과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이 상담자의 의도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일치율에 관심하였다면 Keely, Hall 및 Miller의 연구(1989)는 상담자 자신이 확신을 갖고 의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담효율성과 더 관계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 각 상담자의 의도를 내용으로 평정하지 않고 의도의 명료성(articulation)과 구체성(concreteness) 정

도로 의도를 평정하여 상담자의 상태불안에 따른 상담시간 효율성과의 관계가 탐색되었다. 이때 명료성이란, 상담자가 적절한 상담용어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정도를 평정자가 평정한 것이고, 구체성이란 특정반응에 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조리있게 상세히 설명하는 정도를 평정한 것이다. 결과, 상담자 의도에 대한 말의 명료성이 내담자와 평정자의 성과 평정에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상담자가 자신의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몇가지 면에서 '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상담자의 의도를 복잡한 유형체제로 평정하여 상담 성과와 관련짓는 연구의 대안으로 상담자의 의도의 확신 정도로 의도를 평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인지와 행동으로 엮어지는 비교적 냉정한(cold) 인지매개 모델 혹은 상담과정 모델에 불안이란 정서적 요인을 첨가하엿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담자의 상태불안이 과정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없었다.

Hill(1990)은 상담 회기내 과정에 탐색적 연구들이 보고한 최근의 여러 경향을 개관하였다. Hill은 탐색적 연구와 이론에 기초한 연구간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상담자, 내담자의 언어반응은 성과에 단지 조그만 부분만 설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 패러다임의 수정이나 다른 과정변인의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다양한 내담자 행동의 탐색, 내현적(convert) 과정에의 관심, 과정모델의 변화, 계열분석을 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연구, 사건(event) 접근방법들을 기술하였다.

지금까지는 각 모델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발표된 순서로 각 연구가 다룬 주제와 결과들을 소개하였다면 이제는 각 모델의 연구들이 사용한 접근방법들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미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두 모델이 사용한 방법의 비교

평가도구 및 성과 측정도구

Martin은 그의 페러다임의 적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유목체계를 사용하더라도 평정된 인지와 행동이 결합된 변인이 상담효율성 평가를 더 잘 예언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으며,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증명하였다. 그의 1986년 연구에서는 기대하기, 주의하기 중 정보처리이론에 입각한 유목체계로 상담참여자들의 인지를 평가하였고, 자신이 개발한 상담기술분류(counselor skill taxonomy)를 이용하여 행동을 평가하였다. 1987년 연구에서는 정보처리적 미세치료(information process microtherapy)에 입각하여 내담자 중심치료와 지적요법에 각각 알맞다고 여겨지는 유목체계를 사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와 행동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1988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지과정을 Hill의 의도목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상담자 행동과 내담자 행동도 각각 Hill이 개발한 언어반응유목체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내담자의 인지과정은 1986년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인지목록체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Martin이 여러가지 유목체계를 사용하여 자기의 모델을 평가한 이유는 어떤 목록체계를 사용하더라도 상담참여자들이 보이는 행동보다는 보이지 않는 인지가 매개된 행동으로 상담효율성을 예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상담참여자들의 인지와 행동을 평가하는 유목체계뿐 아니라 상담효율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도 리커트형 10점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목체계들과 성과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모델의 증명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기존의 정보처리유목체계를 사용한 Martin과는 달리, Hill은 상담의 축어록을 분석하기 위해 1978년 상담자언어반응유목체계(Counselor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 : CVRCS)를 만든 이래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과정과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유목체계를 개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1981년에는 내담자언어반응유목체계(client verbal category system)를 개발하여 상담자언어반응유목체계와 함께 교본을 발행하였고(1981), 1985년에는 O'Grady와 함께 상담자의 의도목록체계(counselor intention system)를, 1988년에는 내담자 주관적반응유목체계(Client Reaction System)를 각각 개발하였다. CMP라는 완성된 모델을 제시하였던 Martin과는 달리 Hill은 처음에는 언어반응에 관심을 가졌으나 그 관심이 점점 확대되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과정에 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심과 더불어 유목체계를 개발하여 상담자료에서 이를 확인하려 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유목체계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상담자의 의도목록체계도 발달된 후 끊임없는 관심 속에 주요 연구 주제가 되었으며, 그 주제들의 측정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1988년에 개발된 내담자 주관적 반응유목체계도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들 유목체계에 대해 비판이 없는 바는 아니나 (Stiles, 1987), Martin이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목록체계를 빌어서 상담연구에 적용한 것과는 달리 상담축어록에 근거한 발달과정을 가진 Hill의 체계가 보다 상담적이라 사려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는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수정, 보완된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Hill은 여러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상담자의 의도와 언어반응이 미치는 즉시적 효과, 회기효과, 전체상담효과를 각각 검토하였다. 즉시적 성과는 각 상담자 반응에 대한 조력도(helpfulness) 평정과 내담자 반응의 경험수준으로 평가하였고, 회기 성과는 Stiles와 Snow(1984)가 개발하여 많은 상담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상담시간 효율성 평가 질문지(SEQ :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로 평가하였다. 상담전체 성과는 증상진단 검사(SCL-90)와 자기개념검사로 평가하였다. Hill도 Martin과 같이, 그녀의 상담과정 모델이 가정했던 상담자 투명성(transparency)과 상담 효율성 평가간의 정적 상관을 검증하지 못했는데

(Hill과 O'Grady, 1985).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몰입(preoccupation)은 내담자에게 방해되거나 인간의 작동기억 용량의 한계로 설명하였지만, 검증연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연구절차

그는 3×2m의 2개의 의자, 보조테이블, 램프가 있고 카펫트가 깔려있는 방에 마이크로폰과 비디오를 장치하여 근접해 있는 실험보조실에서 상담을 녹음, 녹화하였다. 이때 실험보조자는 상담과정 중 100feet의 고정간격으로 한번의 상담자-내담자 반응을 8개 발췌하여 녹음, 녹화한다. 이렇게 녹음, 녹화된 여덟번의 상담토막을 다시 들으면서 자극회상기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따로 따로 1시간씩의 면담을 하고 이를 녹음한 후 다시 이 면담을 축어록화한다. 이 때 상담자에게 각각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며 했는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했는지 등의 구조화된 질문을 하여 자유로이 대답하게 하는데, 제 3의 평정자는 이 자유로운 대답의 축어록을 보고 유목체계에 맞추어 부호화한다. 그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인지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직접적 평가에는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Martin 등, 1986). 그러나 그의 연구절차에 한 회기에서 무작위 여덟번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1회 반응만을 부호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의미있는 자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Martin은 거의 일정한 상담실에서 여덟번의 발췌된 상담자-내담자 언어반응에 대해 구조화된 개방질문을 하여 나온 반응을 제3의 평정자가 부호화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러나 Hill은 상담회기 전체를 녹음하여 모든 상담자의 반응을 부호화 하였다. 또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은 훈련된 평정자가 부호화하였지만 상담자의 의도와 내담자의 주관적 반응은 자극된 회상기법에 의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직접 부호화하였다.

그러나 Hill은 단일 사례의 20회기 전체에 대한

자료로써 모델을 확인하거나 4명의 상담자가 4명의 내담자와 상담한 16개의 단일 회기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제한된 사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모델을 확인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단일 사례나 단일 회기로 상담효율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인 일반화에도 심각한 저촉이 되지만 실제 상담을 타당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최윤미(1988)는 26사례의 전 상담 회기를 분석하는 매우 정열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그 방법은 내담자로 하여금 실제 상담에 개입하는데 방해를 하여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물론 상담 과정 연구는 회기 전체나 상담 전체의 상담자, 내담자의 언어 반응 모두를 분석해야만 정보를 상실하지 않고 연구의 일반화에도 기여하겠으나, 이 방법은 무척 많은 경비를 요구하며 매우 소진적이다. Martin과 Stelmazonek(1988)처럼 주요사건을 회상하여 그 사건들의 즉시적 성과는 상담 과정과 성과를 연결짓는 방법이 정보를 잃지도 않으면서 소진적이지 않은 합리적 대안일 것 같다.

분석방법

Martin은 CMP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섯가지 변인(상담자의 인지, 상담자의 행동, 내담자의 지각, 내담자의 인지과정, 내담자의 행동)들이 상담과정에서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 지에 관심하여, 모든 변인들의 매칭(matching)의 발생률(전체쌍에서 그 패턴의 발생빈도)을 산출하고 우연확률 이상의 패턴을 찾고자 하였다. 5개 변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매칭은 모두 26개로, 2개 변인들간의 매칭은 단순매칭으로, 3개 변인 이상의 매칭은 고차 매칭(higher order matching)으로 칭하고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자의 의도와 상담자의 행동, 상담자의 행동과 상담자의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상담자의 의도와 그 의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등이다. 또한 이들 매칭과 상담효율성간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졌고, 상관관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Hill은 1985년 연구에서 단일 사례의 20회기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담자의 의도가 상담단계에 따

라 달라지는지, 상담자의 의도와 상담자의 언어반응 유형간의 일정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나중 1988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의도와 상담자의 언어반응쌍의 즉시적 성과, 회기 성과 및 치료 전체 성과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전체발생빈도에서 특정 의도의 발생빈도 확률을 구하여 의미도 검증을 하거나, 패턴의 확인도 매칭쌍의 전체 발생빈도에서 특정 매칭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을 구해 우연수준이상의 발생빈도로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여 Martin과 동일하다. 또한 특정 패턴과 상담효율성간의 관계도 Martin처럼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논의 및 미래 연구 방향

우리는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더 이상 상담자의 인지나 행동, 내담자의 인지나 행동 등 단일 과정변인으로는 상담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았다. Martin의 CMP를 선택하든, Hill의 과정모형을 선택하든 상담자, 내담자의 인지, 행동을 동시에 제시하여 상담효과와의 관계를 탐색해야 한다. 중요한 이슈는 Martin의 CMP나 Hill의 과정모형이 공히 가정하고 있는 상담자의 인지 과정인 의도와 이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일치율이 상담성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아닌 상관이 없거나 부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이다. Martin은 친숙도 가정을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검증하지 못해도 Hill은 몰입(preoccupation)이 내담자의 상담효율성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확인하는 연구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상담 경험을 통해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상담효율성과 내담자가 얼마나 상담 과정에 관여(commitment)하는가와 관계있는 것 같다. 상담초기에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경험을 솔직히 드러내는 데 관여해야 하나, 지각일치율이 높다는 것으로 지표되는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의가 오히려 회기 상담효율성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 중기에 이르면 상담과 상담내용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자의 의도를 정확히

지각할 수 있으며, 지각해야만 상담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 의도에 대한 내담자 지각일치율은 상담단계에 따라 상담효율성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담효율성은 상담시간 효율성 평가로 탐색되어 상담의 깊이와 순조로움으로 검토되었다. 상담자의 지각일치율은 한개의 반응과 관련된 측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시간 효율성 평정은 한 시간 정도의 상담 1회기 전체를 평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1개 반응과 관련된 측정치는 동일한 수준의 즉시적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회기 평가나 전체 평가는 즉시적 평가의 누적 효과로 보는 것이 당연시되나 이러한 당연스러운 가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성과는 모든 개입의 즉시적 성과들이 누적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몇번의 질적으로 좋은 경험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치된 의도지각의 조력도(helpfulness)평정이나 내담자 반응의 경험 수준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실제로 상담은 상담자→내담자→상담자→내담자...의 연속적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내담자에게 미치는 상담자의 영향에만 제한점으로 검토하였지만,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상담자→내담자→상담자〉, 〈내담자→상담자→내담자〉의 연계(sequence)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망을 통해 볼 때 상담자의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일치율 보다는 내담자의 인지(예, 내담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각각 일치율이 상담효율성에 더 큰 예언력을 보이며, 이 지료가 전문 상담에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상담 과정을 연구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은 상담자의 반응을 내담자가 어떻게 보느냐(지각) 보다는 상담자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가 무엇을 경험하느냐와 상담자가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어 다음 반응을 계획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의 자질에는 예민성이 요구되는데(Garfield, 1983),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적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교류의 모든 측면에서 예민해야 된다. 상담

자의 예민성이 부족하면 내담자의 감정과 지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최명숙(1991)은 내담자의 주관적 반응에 대해 상담자가 정확히 지각했을 때 내담자가 그 다음의 상담자 반응을 조력적으로 평정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심이 요망되는데, 내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의 매개입의 즉시적 성과에 해당한다. Martin 등(1988)의 연구에 의하면 내담자가 더 깊고, 정교하게 경험한 상담 중의 사건이 주사건으로 평가되어 오래기억됨을 볼 때, 그때 그때마다의 더 높은 경험수준의 내담자의 반응은 상담효율성의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담은 양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질적으로 성과를 평가함이 더욱 상담적이다. 좀더 진전된 연구로, 어떤 상담자의 의도나 행동, 혹은 의도와 행동이 내담자 언어반응의 경험수준을 높이는가를 탐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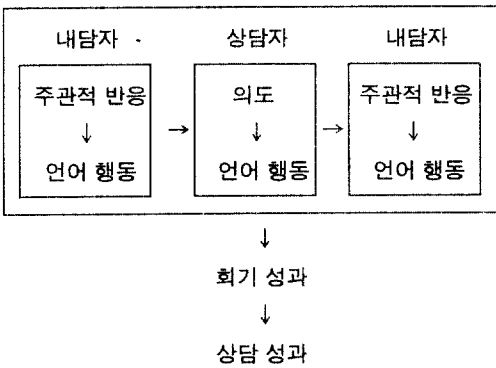
상담 과정에 대한 Martin의 모델과 Hill의 모델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출범한 모델이며 비슷한 과정변인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변인의 측정방법이 서로 다르다. Martin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를 약호화하기, 기억하기, 등록하기 등의 정보처리 모델에 입각하여 측정하였으나 Hill은 나름대로의 유목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Martin에 비해 Hill의 유목체계가 더 '상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담이란 특정 상황에 맞추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유목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더한다. 정보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피험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 자연스런 정보를 얻게 하는 유목체계가 더불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앞에서 다루었던 연구들의 개관을 기초로 두 모델에 대한 대안적 통합모델을 잠정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자극하고자 한다. 먼저 새모델이 갖추어야 할 몇가지 조건들을 열거한 후 모델을 도식화하고 그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을 제안하므로써 본 개관을 마무리한다.

새 모델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우선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과정이 각각의 행동을 매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인지와 행동매칭이 상담효율성에 더 좋은 예언 지표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닌, 내담자가 미치는 영향에 기초한 상담자의 행동으로 상담효율성을 예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Martin과 Hill의 양 모델 모두 내용적으로 볼 때 상담자→내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상담자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상담자→내담자였다. 그러나 상담자도 역시 내담자의 영향을 받아 다음 상담자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반응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내담자→상담자→내담자>가 분석단위가 되어야 상담자의 인지나 행동개입의 즉시적 효과와 이의 누적된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세번째 조건은 상담자의 개입의 즉시적 효과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즉시적 효과에는 내담자가 평가하는 그 개입의 조력도(helpness) 평정, 내담자 자신의 주관적 반응(reaction) 및 내담자의 언어 반응의 질적 평가가 포함된다. 네번째는 가정된 변인들의 관련 정도가 상담 단계에 따라 다를 것을 가정해야 한다. 두 모델은 가정된 변인들간의 관계가 상담 단계에 따라 양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내담자의 상담자 의도에 대한 지각은 상담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미 최윤미(1988)가 보고하고 있지만, 반면 상담자의 내담자 심리적 반응에 대한 지각은 상담단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담자는 상담장면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 초기에는 우선 자신에 주의집중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상담이 익숙해지고 적극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상담 중기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담자와의 관계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자연스런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내담자는 상담 단계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은 단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나서도 안된다. 다섯번째 조건은, 모델에서 가정되는 변인들은 가장 상담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Martin의 정보처

리적 유목들 보다는 Hill의 상담자 의도목록이나 내담자 심리적 반응체계가 보다 상담적인 맥락에 적합하다. Hill(Hill과 O'Grady, 1985)은 그 유목 체계들의 신뢰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각 반응을 상담자나 내담자 자신이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동일한 반응이라도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이 유목체계는 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Hill의 유목체계들은 개발된 이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됨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조건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식은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상담자의 정확한 지각이 있어야 상담자는 그 다음 의도를 계획할 수 있고, 이 의도에 근거하여 행동양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밝은 상담자 행동은 내담자에게 조력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좀 더 진전된 심리적 반응과 언어반응을 유발할 것이다. 조력적 상담자 반응이 누적됨에 따라 회기 성과도 효율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따라서 전체 상담 성과도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잠정적 통합 모델에 근거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은 1) 과연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확히 지각하는 정도가 상담자 반응의 즉시적 성과의 정적관계가 있는가? 2) 즉시적 성과의 누적이 과연 회기 성과 및 전체 상담 성과를 예언 하는가? 3) 상담자의 어떤 의도와 매개된 어떤 언어행동이 내담자의 조력도 평정과

언어반응의 경험 수준을 높이는가? 4) 상담자의 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일치율과 내담자 심리적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 일치율이 상담 단계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가? 등이다.

지난 20년간 심리학은 점진적으로 인지적 입장을 취해왔다. 심리학에 있어서의 인지 혁명은 응용 분야의 연구 수행에 상당히 침투되었으나 상담 효과 연구는 그러한 격변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영향이 미미하다. 이것은 상담과 치료에 인지 혁명과 입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심리학 개념이 상담 효과 연구를 개념화하는 근본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담과 치료에 있어 인지적 입장을 취한 연구와 이론의 예는 쉽게 들 수 있다. Beck(1970), Christensen과 Pass(1983), Ellis(1962, 1971), Meichenbaum(1977), Stone(1980)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접근방법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행해진 연구들은 여전히 과정-성과 패러다임으로 행해졌다. 또 1970년대 후반의 수많은 개관논문들도 상담과 심리치료가 효과적이긴 하나 서로 다른 형태의 상담이나 치료들이 효과면에서 별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방법론적, 해석적, 논리적 다양성을 요구하였다. 본 개관연구는 이러한 필연적인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에의 요구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과정의 인지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오경희, 1986; 최윤미, 1988; 최명숙, 1991)이 있으나 앞으로 상담 과정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세 측면의 통합된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오경희 (1986).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최명숙 (1991). 내담자의 주관적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 일치성이 상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최윤미 (1988).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상담과 심리치료, 1권 1호,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분과.

- Beck, A. (1970). Cognitive therapy : Nature and relation to behavior therapy. *Behavior Therapy, 1*, 184-200
- Christensen, C.M., & Pass, L.E. (1983). *A 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to Counselling/Psychotherapy*. Toronto : OISE Press.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 Lyle Stuart.
- Ellis, A. (1971). *Growth through Reason*,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 Fuller, F., & Hill, C.E. (1985). Counselor and helpee perceptions of counselor intentions in relation to outcome in a single counseling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9-338.
- Garfield, S.L. (1983). *Clinical Psychology :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Behavior*.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
- Goldfried, S.L. (1983). Toward the delineation of therapeutic change principles. *American Psychologist, 35*, 991-999.
- Hill, C.E. (1978). Development of counselor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461-468.
- Hill, C.E., Greenwald, C., Reed, K.G., Charles, D., O'Farrell, M.K., & Carter, J.A. (1981) *Manual for Counselor and Client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s*. Columbus, OH : Marathon Consultant Press.
- Hill, C.E. (1990). Exploratory in-session process research in individual psychotherapy : A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 288-294.
- Hill, C.E., Helms, J., Spiegel, S.B., & Tichenor, V. (1987). Development of a system for assessing client reactions to therapist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7-36.
- Hill, C.E., Helms, J., Tichenor, V., Spiegel, S.B., O'Grady, K.E., & Perry, E. (1988). The effects of therapist response modes in b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22-233.
- Hill, C.E., & O'Grady, K.E. (1985). List of therapist interventions illustrated in a case study and with therapists of varying theoretical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2.
- Kagan, N. (1973). *Influencing Human interaction : Eleven years of IP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 Kagan, N., Krathwohl, D.R., & Miller, R.L. (1963). Stimulated recall in therapy using videotape : A cas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0*, 237-243.
- Kelly, K.R., Hall A.S., & Miller, K.L. (1989). Relation of counselor intention and anxiety to brief counseling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58-162.
- Mahrer, A.R. & Nadler, W. (1986). Good moment in Psychotherapy : A preliminary review, a list, and some promising research aven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0-15.
- Martin, J. (1984). The cognitive mediational paradigm for research o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58-571.
- Martin, J., Martin, W., Meyer, M., & Slemmon, A. (1986).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mediational paradigm for research o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115-123.
- Martin, J., Martin, W., & Slemmon, A. (1987). Cognitive mediation in person-centered and rational-emotive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51-260.
- Martin, J. & Stelmazonek, K. (1988). Participant's identification and recall of important even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85-390.
- Martin, J., Martin, W., & Slemmon, A. (1989). Cognitive-mediational models of action-act sequ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8-16.

McCarthy, P.R., Shaw, T., & Schmeck, R.R. (1986).

Behavioral analysis of client learning style during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49-254.

Meichenbaum, D. (1977). *Cognitive-Behavior Modification: An Integrated Approach*. New York: Plenum.

Rice, L.N. & Greenberg, L.S. (Eds.) (1984). *Patterns of Change: Intensive Analysis of Psychotherapy Process*. New York: Guilford.

Stiles, W.B. (1987). Some intentions are observab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36-239.

Stiles, W.B. & Snow, J.S. (1984).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19-130.

Stone, G.L. (1980). Effects of experience on supervisor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84-88.

Abstract

Covert Processes in Counselor Client Interaction : A Review

Myoung Ja Keum & Chang-H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researchers in the past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covert processes in counseling, in spite of the obvious fact that counseling participants' covert feelings and thoughts, influence counseling processes.

Recently, Martin's(1984) Cognitive Mediation Paradigm and Hill's(1985) counseling process model emphasize counselor's and client's cognitive processes and challenge Process-Product Paradigm, which tends to focus on overt variables in counseling process. Though Martin's and Hill's models have some difference in their concepts and methodologies, both models propose basically similar counseling process, which usually proceeds in the order of Counselor's Cognition→Counselor's Verbal Behaviors→Client's Cognition→Client's Behaviors.

This review discussed results of several researche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two models, comparing the two models in terms of their concepts and methods, and proposed a new counseling process model integrating the two models. According to this integrated model, counselor's accurate perception of client's covert psychological responses and behaviors enables counselor to formulate appropriate counseling intentions, and thus the counselor becomes ready to communicate those intentions to the client.

The communication on the part of counselor, in turn, facilitate to client's psychological reaction and communicative behaviors which will eventually result in positive counseling outcome. It is noted that accumulation of the immediate outcomes of the psychological bearing on the session effectiveness, and ultimately on the entire counseling outcome. The paper also discusses pertinent research themes and some methodology for testing the hypotheses of this integrated model.